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치료비·조호물품 지원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월 3만원 내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대상 조호물품 배송
“조기 발견해 적극 치료임하면 중증 이환율 감소”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문선화)에서는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료비 및 조호물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2인가구 기준 : 3,590천원)인 가구이다.

신청방법은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기저귀, 영양제, 파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치매 어르신들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호물품은 택배로 배송한다.

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중증으로 이환율이 확연히 감소된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치매환자 대면프로그램이 불가피하게 중단되었지만 예약제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니 60세 이상인 분들은 꼭 검진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며 맞춤형 사례



관리서비스, 실종예방사업, 가정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화순군, 어르신 위한 생활정보안내 책자 제작

군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쉬워
군청 민원실·읍·면 경로당 비치

화순군은 사회적 배려 대상 민원인이 더욱 편하게 지원 정책을 이해하도록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보안내 책자를 제작, 군청 민원실과 읍·면 경로당에 비치했다.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보안내’ 책자는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큰 활자와 판형(B4)으로 제작했다.

군은 화순군이 지원하는 사업 중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제작했다.

책자에는 노인교육(취미), 노인건강, 치매예방, 노인지원, 연금·보험, 경로당과 시설 관련 사업 등을 담았다.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내



용, 신청기관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식적인 사무를 떠나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주도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주 서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

민관협의체 구성·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근거 등 담겨

광주 서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서구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구는 그동안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서구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주거·보건·의료·재가생활 지원 등 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근거가 담겼다.

서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간호직 및 사회복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19개팀 64명의 조사팀을 구성, 관

내 75세이상 노인 12,415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과 돌봄문제를 조사하고 전문가 케어회의를 거쳐 통합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지역기관과 협력해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지원 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재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위험군 진입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영암군 영암읍, 안부전화 한통 집에 계시는 어르신 돌봄 강화

영암군 영암읍(읍장 정제기)은 마을 경로당 임시 휴관조치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마을별 담당 안부팀을 구성하여, 15일부터 경로당 개방시까지 안부전화를 실시해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암읍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의 돌봄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부녀회장으로 마을별 안부팀을 구성하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기로 하였다.

각 42개 마을 안부팀들이 독거노인(563명)들에게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과 함께 방문판매 집단모임, 다중집합장소 등 모이는 것을 자제할 것을 최소 주회 안내 해주는 등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므로써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